

# 美国石油情勢報告書 (下)

— 日本石油連盟 —

## 第2部 各論

### IV. 西海岸

#### 1. 石油需給現況

제 5 지구(西海岸, 알래스카, 하와이)의 1983년 도 石油需給실적은 <表-40>과 같다.

#### 2. 石油需給전망

① 제 5 지구의 原油生産실적과 방문선의 1990년의 생산전망은 <表-41>과 같다.

<表-41> 서해안의 원유생산량 전망

(單位：千B/D)

	1983年	1990年		
		K 社	N 社	O 社
알 레 스 카	1,714		1,690	1,580
캘 리 포 니 아	1,109	지역별 전망없음	1,313	1,531
(陸 上)	( 924)		(1,023)	( 938)
(海 上)	( 182)		( 290)	( 593)
其 他	2			
합 計	2,825	2,980	3,003	3,111

② <表-42>에 나타난 바와 같이, 이 生産原油의 일부는 타지구로 이동되고 또한 외국으로부터 소량 수입하고 있다.

<表-40> 1983年 石油需給(第5地區)

(單位：千B/D)

	原 油	NGL	半製品	휘발유	中間製品	重 油	石油코크스	其 他	製品合計
域內生産	2,825	33	14						8
輸 入	210	16	22	22	9	21		7	58
(西半球)	(21)		( 4)	( 6)	( 3)	( 6)		( 2)	(16)
(中 東)	(—)		( 1)	( —)	(—)	(—)		( 1)	( 2)
(아시아)	(188)		(18)	(13)	( 1)	( 5)		( 1)	(20)
處 理 量	2,100	27	34						
產 出 量		LPG40	—	979	630	307	105	214	2,235
輸 出 量	146	4	—	3	39	101	78	3	224
內 需	65	57	0	1,063	645	241	28	217	2,194
移 出	—		—	0	0	3	—	2	5
移 入	709		1	56	38	12	—	4	111

〈表-42〉 서해안의 원유밸런스

(單位：百萬B/D)

	1983年	1990年			
		O社	M社	K社	N社
域 內 生 産	2.83	3.11	3.23	2.98	3.00
輸 入	0.21	0.10	0.20	0.15	0.19
域 內 處 理	2.10	2.34	2.59	2.20	2.20
他地區로의轉送	0.17	0.77	0.84	0.93	0.99

〈表-43〉 域內生産原油의 배분

(單位：百萬B/D)

	1985年			1990年		
	生産量	第 5 地區의 處理	他地區로의 移送	生産量	第 5 地區의 處理	他地區로의 移送
알래스카原油	1.69	0.89	0.80	1.69	0.87	6.82
캘리포니아						
陸上	1.02	0.05	—	1.02	1.02	—
海上	0.11	0.06	0.05	0.29	0.12	0.19

N社는 域內生産원유의 배분에 관하여 〈表-43〉과 같이 예상하였다.

③ 서해안의 處理原油는 타지구와 비교하여 상당히 重質, 高硫黃이다. 금후의 處理原油에 관하여 방문선의 K社와 O社는 〈表-44〉와 같이 예상하였다.

〈表-44〉 서해안의 처리원유의 성상

項目	年	1982	1983	1990	
	實 績			K社	O社
A P I°		25.90	25.65	24.7	24.6
硫黃分 (wt%)		1.00	0.99	1.30	N·A

④ 제 5 지구의 석유제품별 수요실적 및 방문선 各社의 1990년의 전망은 〈表-45〉와 같다.

### 3. 設備對應

#### (1) 常压증류장치 能力

DOE에 의하면, 제 5 지구의 상압증류장치능력은 19

〈表-45〉 石油製品 수요전망 (第 5 地區)

(單位：千B/D)

	1983年 (實績)	1990年			
		K社	M社	O社	A社
휘 발 유	1,069.4	1,020	1,050	1,030	1,030
제 트 유	291.5	720	350	360	330
中 間 溜 分	346.4		430	400	440
殘 渣 油	240.9	260		310	320
其 他	246.3	440		480	430
合 計	2,194.5	2,440	2,440	2,580	2,550

84년 6월 현재 310만b/d으로, 1981년 1월의 320만 b/d에 비해 10만b/d의 능력이 축소되었다(表-46 참조).

〈表-46〉 常壓蒸溜장치능력 (第 5 地區)

(單位：千B/D)

	정유공장數	能 力
1982年 1月 1日	59	3,124
1983年 1月 1日	56	3,124
1984年 1月 1日	57	3,124

가동률은, 1983년에 69%였으며, 방문선의 2個社는 1990년의 전망을 〈表-47〉과 같이 예상하였다.

〈表-47〉 常壓蒸溜裝置 가동률 전망 (第 5 地區)

	1983年(實績)	1990年	
		A社	K社
常壓蒸溜裝置 (百萬B/D)	3.13	3.1	3.0
處 理 量 (百萬B/D)	2.16	2.3	2.2
가 동 률 (%)	69	75	74

#### (2) 分解設備

제 5 지구의 분해설비능력은 〈表-48〉과 같다. 이 표에서 明白한 바와 같이, 제 5 지구에서는 증설의 中心은 코커이다.

금후의 전망에 대해 A社는 1990년 前後에는 코커 및 접촉분해장치의 증설이 필요하게 될 것이라는 견해

〈表-48〉 서해안의 분해설비능력

(單位: 千BPSD)

設備	年	1981	1982	1983	1984
코	커	379	369	448	469
비스	브레이커	50	36	34	23
接觸	分解裝置	666	673	703	692
水素化	分解裝置	385	393	398	385
計		1,480	1,471	1,583	1,569
常壓	蒸溜裝置	3,467	3,302	3,337	3,321
對常壓	蒸溜裝置 能力比(%)	42.6	44.5	47.4	47.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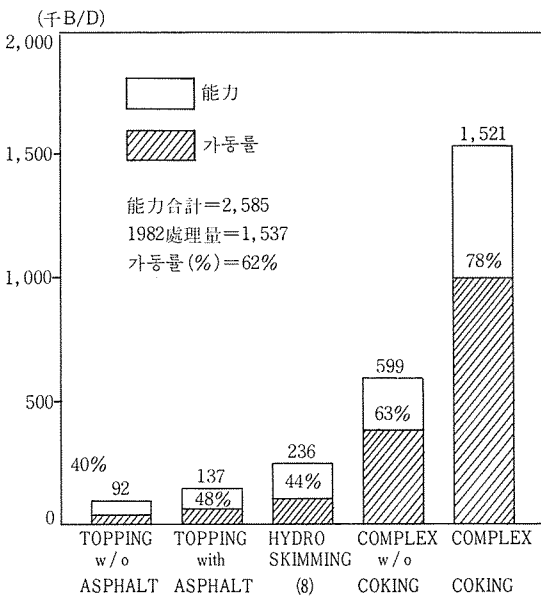
〈資料〉 O. G. J.

를 피력하였다.

S社は 설비구조에 따른 정유공장의 가동률 차이에 관하여 〈그림-9〉로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1982년의 캘리포니아의 정유공장의 평균가동률은 62%였다. 코커를 가진 분해형 정유공장의 가동률은 평균을 크게 상회하는 78%였지만, 토평만의 정유공장은 40%에 지나지 않았다.

제5 지구의 석유의 1981~83년도 輸出入實績 및 1990년의 전망은 〈表-49, 50〉과 같다.

〈그림-9〉 캘리포니아의 精製能力·가동률



〈表-49〉 석유제품 수출현황과 전망(第5地區)

(單位: 千B/D)

	1981年	1982年	1983年	1990年 A社
휘발유	1	4	3	—
L P G	4	5	4	—
中間製品	4	32	39	49
重油	64	81	101	20
石油코크스	59	75	78	93
其他	8	6	4	—
合計	140	203	229	162

〈表-50〉 石油製品輸入의 현황과 전망(第5地區)

(單位: 千B/D)

	1981	1982	計	1983			
				西半球	아시아	A社	N社
휘발유	28	45	29	6	13	—	—
中間製品	15	11	71	3	1	—	—
重油	25	21	21	6	5	—	—
L P G	20	20	26	15	2	—	—
(小計)	(88)	(97)	(97)	(30)	(21)	70	—
휘발유基材 半製品	13	14	14	2	18	—	—
合計	101	111	97	32	39	70	100

## V. 石油코크스의 需給展望

### 1. 수급현황과 전망

美国의 石油코크스의 1982년 실적 및 G社의 1985년, 90년 전망은 〈表-51〉과 같다.

〈表-51〉 石油코크스 需給전망

	1982年	1985年	1990年
生産	0	17.0~ 18.0	18.3~ 19.5
內需	7.0	5.9	6.4
輸出	9.0	11.1~ 12.1	11.9~ 13.1
코커能力	1,170	1,577	N. A
(第5地區)	(450)	(483)	

(單位: 生産, 內需, 輸出은 百萬쇼트 t/年. 코커能力은 千B/D)

(1) 生 産

① 現 況

① 美国은 전세계의 생산(2억쇼트톤) 가운데 약 80%를 생산하고 있다.

② 美国内の 주요지구별 생산량 및 유향분은 <表-52>와 같다.

<表-52> 石油코크스 生産量

(單位：百萬쇼트 t/年)

	生 産 量	硫 黃 分
第 5 地 區 (西 海 岸)	5.0	L/S, M/S
第 3 地 區 (걸 프)	5.0	M/S, H/S
其 他	6.0	H/S
合 計	16.0	

② 전 망

① O社는 생산량에 대해서는 美國 전체로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한편 A社는 今後 코커증설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생산량이 증가되지 않을 것이라고 하였다.

② 품질특성에 대해서는 輕質저유황유의 감소 및 重質고유황유의 증가에 따라 高硫黃化할 것으로 보여진다.

(2) 內 需

① 現 況

용도별 內需내역은 다음과 같음(單位=百萬쇼트t).  
 燒成用 4.2, 연료용 2.4, 기타 0.4, 합계 7.0

② 전 망

L社는 美国알루미늄産業 停滯에 따라 내수는 微增에 그칠 것이라는 의견을 피력하였다.

(3) 輸 出

① 現 況

① 용도별 수출내역은 다음과 같음(單位=百萬쇼트t/年)

燒成用 3.2, 연료용 5.8, 합계 9.0

② 日本에 대한 수출은 1982년 240萬쇼트t, 1983년

340萬쇼트톤으로 각기 수출에 차지하는 비율은 약 20%, 25%였다.

今後, 日本의 보일러用 石油코크스使用이 확대될 것도 예상되지만, 보일러用 燃料로는 H/S 石油코크스가 질소분이 적다는 점과 가격적으로도 값이 싸기 때문에 主流를 이루고 있다(表-53 참조).

더우기 日本의 石油코크스 용도별 수요는 다음과 같다(1982년도, 單位=百萬쇼트t/年).

시멘트 1.0, 철강 0.5, 가스·코크스 0.7, 알루미늄 0.1, 카바이트 0.3, 합계 2.5

<表-53>

	生産場所	硫 黃 分	窒 素 分
M/S	第 V 地 區 (西 部)	1.5~ 2.5wt%	2.3~ 3.0wt%
H/S	第 III 地 區 (걸 프)	5.0~ 6.0wt%	1.3~ 2.0wt%

② 전 망

① 세계의 燒成用코크스 수요는 大洋洲 및 中南美의 알루미늄産業의 성장에 따라 증가가 예상되고 L/S 石油코크스의 수출도 점증할 것이다.

② H/S 石油코크스의 수출에 대하여는 가격이 문제이지만 보일러 용도를 중심으로 점증이 예상된다.

(4) 코커能力

① 現 況

1982~83년의 코커增設러시는 요즈음 원유가격의 重輕가격차 축소에 따라 페이스가 저하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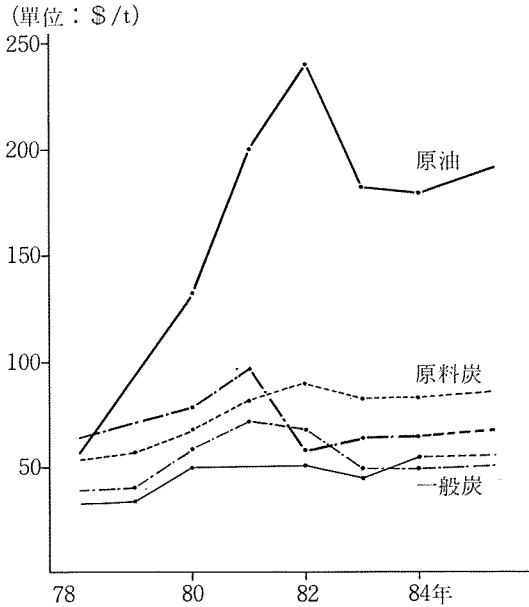
② 전 망

코커의 新增設전망에 관하여는 현재의 원유 및 제품의 重輕가격차로는 채산성이 부족하여 지금으로서는 불투명하다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였다. 그러나 1990년 시점에는 원유의 重質化가 기대되고 重輕가격차가 확대되게 된다면 다시 코커가 증설될 것으로 예상하는 경우도 있었다.

2. 價格현황과 전망

原油 및 石炭에 대한 코크스의 가격우위성(但 日本

〈그림-10〉 日本着CIF 價格



着 CIF가격 \$/t)에 대하여는 〈그림-10〉과 같다.

(1) H/S (유황분 4.5wt%) 코크스

① 現況

1983년~84년에 걸쳐서 一般炭에 대한 가격(日本着 CIF베이스) 우위성이 적어져 왔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③ 英國炭坑파업의 영향으로 H/S石油코크스에 대한 수요가 일시적으로 증가하였다.

② 1983년~84년의 嚴冬의 영향에 의한 원유처리량의 증가에 힘입은 近年의 코크增設러시에 의해 휘발유가 공급과잉이 되었기 때문에 거꾸로 코크의 가동률이 떨어져 石油코크스의 생산량이 감소하였다.

② 전망

一般炭과 경합하는 모습으로 추이할 것으로 생각된다.

(2) L/S (유황분 1.0~1.5wt%) 石油코크스

① 現況

原料炭에 대하여 가격우위성을 가지고 있다.

② 전망

世界の 燒成用코크스의 수요증가에 따라 가격은 점점 상승해 원료탄에 접근할 가능성이 있다.

(3) 石油코크스 價格전망

석유코크스는 휘발유의 부산물이라는 성격에서 안정성을 결하고 있고 더구나 알루미늄市況, 석탄수급에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가격은 불안정적인 움직임이 예상된다.

3. 品質特性

석유코크스의 품질특성은 석탄과 대단히 유사하다. 〈表-54〉에 日本으로 수출되는 美國産 석유코크스와 濠洲일반탄과의 비교를 보여주고 있다.

〈表-54〉 日本으로 수출되는 美國産石油와 호주 일반탄과의 비교

性狀 單位 燃料	水分	灰分	硫黃分	揮發分	固 定 炭素分	窒素分	파 나 지 움	HGI	粒 度	高 位 發熱量
	(wt%)	(wt%)	(wt%)	(wt%)	(wt%)	(wt%)	PPM	-	-	(kcal/kg)
美國産M/S 石油코크스	8 ~10	0.2 ~0.5	1.2 ~2.0	10 ~15	85 ~90	2.3 ~3.0	400 ~700	50 ~70	0×6mm80%以上 0×25mm90%以上 0×75mm	8300 ~8500
美國産H/S 石油코크스	8 ~10	0.2 ~1.0	4.5 ~6.0	10 ~15	85 ~90	1.3 ~2.0	400 ~700	50 ~70	0×75mm	8300 ~8500
濠洲一般炭	8 ~10	10 ~20	0.3 ~1.0	20 ~35	40 ~60	1.0 ~2.0	-	45 ~55	0×50mm	6000 ~6800

## VI. 石油會社の 收益狀況

### 1. 概 況

美國 주요 석유회사의 1973~83년의 수익상황을 보면, 各社 모두 1979~81년에 상당히 高水準의 이익을 올렸지만, 그 후는 이익이 감소하는 경향이다. 또한 各社 모두 이익의 대부분을 石油·가스部門에서 얻고 있다.

1981~83년의 石油·가스관계의 이익을 부문별로 표시하면 (表-55)와 같으며, 거의가 上流部門에서 이익의 80% 전후를 얻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表-55〉美國 주요회사의 收益狀況

(單位: 億\$, 괄호內%)

	1981年	1982年	1983年
<b>엑 스</b>			
매출액(石油, 가스)	1,024	926	836
稅 後 利 益	52	44	51
上 流 部 門	41( 78)	34( 77)	41( 80)
下 流 部 門	11( 22)	10( 23)	10( 20)
<b>모 빌</b>			
매출액(石油, 가스)	533	492	434
稅 後 利 益	27	16	18
上 流 部 門	18( 66)	14( 87)	15( 83)
下 流 部 門	9( 34)	2( 13)	3( 17)
<b>텍 사 코</b>			
매출액(石油, 가스)	570	465	395
稅 後 利 益	21	15	15
上 流 部 門	20( 98)	16( 104)	15( 102)
下 流 部 門	1( 2)	△ 1(△ 4)	△ 0(△ 2)
<b>세 브 론</b>			
매출액(石油, 가스)	439	341	272
稅 後 利 益	22	14	17
上 流 部 門	16( 73)	12( 84)	14( 81)
下 流 部 門	6( 27)	2( 16)	3( 19)
<b>결 프</b>			
매출액(石油, 가스)	272	277	260
稅 後 利 益	23	20	20
上 流 部 門	20( 85)	15( 74)	16( 31)
下 流 部 門	3( 15)	5( 26)	4( 19)

	1981年	1982年	1983年
<b>아 모 코</b>			
매출액(石油, 가스)	259	242	235
稅 後 利 益	18	18	18
上 流 部 門	21( 116)	18( 98)	18( 98)
下 流 部 門	△ 3(△ 16)	0( 2)	0( 2)
<b>아 르 코</b>			
매출액(石油, 가스)	282	270	259
稅 後 利 益	38	42	38
上 流 部 門	25( 66)	26( 63)	26( 67)
下 流 部 門	( 34)	16( 37)	12( 33)

(資料) 各社: 영업보고서

### 2. 上流部門

美國 20개 석유회사의 保有매장자원량 및 연간 추가 매장량을 (表-56)에 나타내고 있다. 이 表에서 명백한 바와 같이, 1983년말 현재의 1社當 평균보유매장량은 약 19억배럴, 또한 연간 추가매장량은 1社當 약 8,000만배럴이었다. 1979~83년의 연간 평균매장량은 8,600만배럴이고 약간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 매장량 追加 1배럴當의 1979~83년의 平均코스트는 셀의 8.13\$/B로부터 소하이오의 37.40\$/B까지 各社마다 각각이다. 석유회사로서는 자원, 특히 리스크가 적은 자원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과제이고 美國內에서의 探鑛이 중요시되는 경향이다. 더우기 (表-57)에 나타난 바와 같이, 近年 企業買收가 성행하고 있지만, 그 주요한 이유는 자원확보라고 한다.

그러나 美國에는 모빌과 같이, 기업매수에 적극적인 경우도 있는가 하면 (表-58 참조) 엑스의 경우처럼 전혀 소극적인 경우도 있다. 엑스가 매수를 하지 않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고 한다.

① 정제설비 등 불필요한 것도 사는 결과가 된다.

〈表-58〉모빌의 企業買收

年 次	買 收 企 業	買收價格 (億\$)
1979年	Trance Ocean Oil	7.9
1980年	General Crude Oil	7.2
1982年	Anschutz	5.0
1984年	Superior Oil	57.0

〈表-56〉 原油·가스매장량 톱20社の 美國內 탐광개발투자와 추가매장량

(單位: 百萬배럴, 百萬달러)

會社名	1983年末	年間追加埋藏量 <sup>1)</sup>		코스트\$/B <sup>2)</sup>		探 鑛 投 資 額 <sup>3)</sup>			
	保有確認埋藏量 <sup>4)</sup> (가스%)	83	79~83 平 均	83	79~83 平 均	83	開 發 純收入 對 比	79~83 平 均	開 發 純收入 對 比
엑슨	5,688 (51%)	287	239	12.10	13.62	3,463	72%	3,255	72%
아르코	4,918 (48%)	*60	96	7.82	12.49	N. A		N. A	
소하이오	3,859 (27%)	71	40	29.48	37.40	2,083	66%	1,400	45%
셀	3,405 (36%)	208	261	9.88	8.13	2,061	54%	2,122	46%
아모코	3,271 (48%)	*82	146	16.07	12.17	N. A		N. A	
세브론	1,995 (41%)	*75	83	12.25	14.69	N. A		N. A	
모빌	1,901 (55%)	114	93	13.02	15.24	1,474	62%	1,410	61%
텍사코	1,881 (49%)	43	92	37.72	16.44	1,616	62%	1,508	58%
게티	1,596 (25%)	108	66	7.83	15.56	842	44%	1,025	75%
유니온	1,504 (56%)	91	84	6.81	9.29	606	41%	781	57%
걸프	1,420 (44%)	101	89	11.91	15.40	1,205	52%	1,366	61%
필립스	1,114 (52%)	34	38	20.71	19.13	694	60%	712	72%
셴	1,114 (43%)	40	65	19.52	12.83	784	46%	804	65%
마라톤	868 (34%)	18	27	26.00	16.38	455	44%	441	45%
테네코	821 (69%)	69	91	13.56	12.22	922	68%	1,122	92%
코노코	732 (50%)	*61	52	11.24	12.02	478	42%	N. A	
옥시덴탈	648 (63%)	28	38	13.37	17.54	379	41%	670	80%
시티즈·서비스	648 (63%)	28	38	13.37	17.54	379	41%	670	80%
슈피리얼	502 (64%)	86	68	18.64	11.17	739	81%	755	92%
아라메다·헤스	391 (39%)	*10	12	34.98	19.23	866	56%	N. A	
펜조일	299 (55%)	14	31	17.07	11.03	239	41%	302	52%
平 均	1,899 (45%)	80	86	12.78	13.33	—	—	—	—

註: 1) 가스 6,000立方피트=1 배럴로 환산.

2), 3) 買取, 埋藏량평가전망에 의한 것은 제외.

4) 개발순수입(美國內의 개발부문순수입으로부터 로열티와 생산코스트를 차감한 것)과의 對比.

\*高次回收에 의한 증가를 포함.

〈資料〉 W社

〈表-57〉 大規模 企業買收

買收企業	被買收	競合企業	買收額 (億\$)	資源1배럴당 買收費	合意締結
셀·오일	벨릿지·오일	—	36	—	79. 9. 30
플라워	센트쇼미네랄즈	—	26	—	81. 8. 31
엘프	텍사코·걸프	—	42	—	81. 6. 26
듀폰	코노코	시그람·모빌	74	5.35\$/B	81. 7. 6
U. S. 스틸	마라톤	모빌	65	4.58\$/B	81. 11. 19
옥시덴탈	시티즈·서비스	코노코, 걸프, 메사	41	—	82. 8. 13
산타·페	서전·퍼시픽	—	52	—	83. 9. 27

買 取 企 業	被 買 取	競 合 企 業	買 取 額 (億\$)	資 源 1 배럴당 買 取 費	合 意 締 結
텍 사 코	계 티	펜 조 일	101	5.85\$ / B	84. 1. 6
R. D. 셀	셀 · 오 일	—	52	—	84. 1. 24
소 칼	걸 프	아 르 코, 메 사	132	5.82\$ / B	84. 3. 5
모 빌	슈 피 리 얼	—	57	—	84. 3. 11

② 探鑛·개발에는 조세감면 등의 세제상의 메리트가 있다.

방문선 중에는 이 엑스方式에 대해서 칸트리·리스크, 탐광개발의 성공률 등을 고려한다면 조건이 양호한 매수방법이 매력적이라고 답하였던 경우도 있었다.

그리고 석유자원획득의 수단으로서 Q레이트(註참조)가 낮은 회사의 매수는 여전히 계속될 것이라는 견해를 많은 석유회사와 은행이 피력하였다.

註：Q 레이트=株價÷1株當資産

1株當資産=自己資産÷발행주식수

Q 레이트가 0.5이하의 회사는 매수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주요회사의 1984년 9월 현재의 Q 레이트는 다음과 같다.

마메라다·헤스 0.45, 유니온 0.43, 필립스 0.53, 펜조일 0.61, 션·오일 0.55

### 3. 下流部門

1980년을 피크로 下流部門은 이익감소가 계속되고 있지만, 점차로 1983년에는 이익감소율이 둔화, 개중에는 근소하나마 이익증가로 反轉한 경우도 볼 수 있다. 이것은 요즈음 진행되고 있는 정유공장 폐쇄, 설비고도화, 주유소수삭감(그림-11 참조), 감원 등의 합리화책이 겨우 열매를 맺은 때문인 것이라고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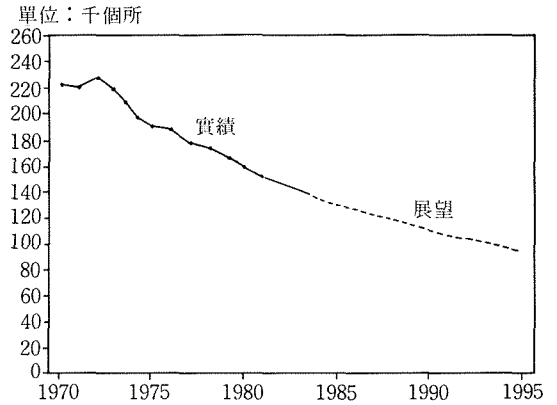
下流部門의 收益전망에 관하여는 방문선의 대부분이 당분간은 회복될 가능성은 없다고 비관적인 견해를 표명하였다.

그러나 회복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방문선에서 가지각색의 의견을 말하였다.

#### (1) O社

현재는 코스트하락, 1985, 86년에는 충분한 것은 아니지만, 회복이 예상된다.

(그림-11) 美國의 주유소수



#### (2) D社

1.5年쯤 지나서 회복

#### (3) G社

현재 개선경향이 보이는 경제마진은 1983년의 1.44 \$/B로 부터 1985년에는 1.70\$/B, 1990년에는 1.95 \$/B로의 상승이 기대된다.

#### (4) Q社

2~3年後 회복

#### (5) A社

5年後 회복

### 4. 非石油·가스部門

1960년대부터 메이저는 이미 석탄, 우라늄 등 非石油자원의 획득에 적극적이었지만, 그 이후 非에너지部門도 포함한 多角化의 움직임이 더욱 활발화하게 되었다.



1970년경부터 산유국에 의한 自國석유자원 지배의 경향이 강해져 메이저의 지배력은 약해지기 시작하였지만, 그 위에 1973년의 제1차 석유위기에 의해 이것

이 가속화되었다. 또한 석유자원의 有限性도 강하게 의식하게 되고 동시에 가격이 高騰함에 따라 장래의 석유수요에 그늘을 나타내었다. 이것들이 메이저의 多角

(表-59) 美國 主要石油會社의 非石油·가스部門이익(순이익 기준)

(單位: 100萬 \$)

石油會社	部 門	1979	1980	1981	1982	1983
엑슨	① 利益計	4,295	5,350	4,826	4,186	4,978
	② 非石油·가스部門計	398	268	111	(113)	307
	石炭	(13)	4	13	23	37
	기타 에너지(電力, 우라늄등)	(10)	(30)	(29)	(102)	20
	化學	456	345	238	93	270
	電機	—	(9)	29	(50)	(58)
	非鐵金屬	(28)	(40)	(97)	(114)	(57)
	其他(事務機등)	(7)	(2)	(43)	37	95
	②/① (%)	9.3	5.0	2.3	—	6.2
모빌	① 利益計	2,007	2,813	2,433	1,213	1,503
	② 非石油·가스部門計	207	28	(10)	(45)	49
	化學	113	119	93	24	8
	板紙·콘테이너	40	71	57	24	1
	小賣·카타로그販賣	54	(162)	(160)	(93)	40
	②/① (%)	10.3	1.0	—	—	3.3
텍사코	① 利益計	1,759	2,240	2,310	1,281	1,233
	② 非石油·가스部門計	—	87	110	41	33
	化學	97	77	81	4	(23)
	其他(投資등)	N. A	10	29	37	56
	②/① (%)	—	3.9	4.8	3.2	2.7
소칼 (現세브론)	① 利益計	1,785	2,401	2,380	1,377	1,590
	② 非石油·가스部門計 (=化學)	39	34	31	(16)	(12)
	②/① (%)	2.2	1.4	1.3	—	—
아모코	① 利益計	1,507	1,915	1,922	1,826	1,868
	② 非石油·가스部門計	181	120	108	5	67
	化學	202	144	101	76	113
	石炭·非鐵金屬	(21)	(24)	7	(71)	(46)
	②/① (%)	12.0	6.3	5.6	0.3	3.6
유니온	① 利益計	501	647	791	804	626
	② 非石油·가스部門計	121	152	165	104	92
	化學	80	104	111	90	74
	地熱	8	21	51	21	29
	非鐵金屬	33	27	3	(7)	(11)
	②/① (%)	24.2	23.5	20.9	12.9	14.7

註: 實態가 判然하지 않은 “其他”는 除外함.

(資料) 各社 Annual Report 및 同 Supplement

化를 가져온 誘因이다. 더우기 석유가격 高騰에 따라 1970년대 후반에 메이저는 남아돌아가는 케시플로우를 떠안게 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石油·가스에의 投資機會가 상대적으로 감소한 것도 非石油·가스에의 진출에 박차를 가하는 결과가 되었다.

多角部門의 평가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하기는 하나 그들—化學, 石炭, 非鐵金屬 등—은 지금 단계에서는 기대에 反하여 아무래도 투자에 상응하는 이익을 올린다고는 말하기 어렵다.

(1) 주요 9社의 상황

이번에 방문한 텍사코, 세브론(舊名 소칼), 아모코, 소하이오, 아르크, 유니온에다 엑슨, 모빌, 걸프를 추가한 주요 9社의 과거 5년간의 多角部門의 업적은 <表-59>와 같다.

1983년에는 대상 9社中 多角部門이 흑자를 계상한 것은 엑슨, 모빌, 텍사코, 아모코, 유니온의 5社에 지나지 않는다. 더구나 모빌, 텍사코, 아모코는 흑자라고 하기는 하나 극히 적은 액수에 지나지 않는다.

本業인 石油·가스의 이익이 제 2차 석유위기후 1980~81년을 피크로 이후 감소로 바뀌고 있지만, 다각부문의 이익은 이것을 보충하는게 가능하지 않거나 部門에 따라서는 赤字가 되어 本業에서 발을 거두어 들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鋼·알루미늄 등 비철금속 부문에서는 市況의 악화에 따라 各社 모두 대폭적인 적자를 계상하고 감산, 閉山 또는 매각을 부득이하게 하도록 하고 있다. 비철금속부문에의 진출은 실패했다고 하는 견해가 유력하다.

현재 多角部門은 정말로 건축과 합리화의 시대로 들어섰다고 한다. 各社 모두 同部門에의 투자를 필요한 최소한으로 억제하든가 또는 합리화를 위한 투자에 한정하면서 市況의 회복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2) 化學部門

本業인 石油가스와의 접점에 있으니만큼 化學部門에는 주요석유회사가 일제히 진출하고 있다. 그러나 엑슨, 아모코, 유니온을 제외하고도 이익수준은 일반적으로 낮다. 1979~80년을 경계로 하여 화학분황을 반영하여 收益이 악화하였고, 일부 회사에서는 적자가 되고 있다. 덧붙여서 말하면 조대대상 9社中 1983년에는 텍사코, 소칼, 걸프, 소하이오 등 4社가 적자다. 엑슨은 어느 정도의 수익을 올리고 있지만 업적이 약간 회복된 1983년의 매출이익률도 4.2%로 석유의 6.1%를 하회하고 있다. 이익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1979년에는 10.6%였지만, 1983년에는 5.4%로 감소하였다(1974년의 피크시에는 15.4%).

더구나 化學部門에서도 역시 플랜트폐쇄 등의 합리화가 실시되고 있다(表-60 참조).

(3) 石炭部門

9社中 석탄을 생산하고 있는 주된 회사는 엑슨, 소하이오, 아모코, 아르크, 걸프의 五社로 텍사코 등은 대규모의 자원을 보유하고 있긴 하지만 생산하지 않고 있다.

요 數年, 주된 需要業界인 電力의 수요신장을 저하와 철강의 부진으로 석탄수요도 기대된 만큼 늘지 않고 있다. 또한 炭價도 그만큼 상승하지 않고 있다. 그 결과 석탄부문의 이익수준은 일반적으로 낮고 때때로 적자이다. 석탄만의 이익이 공표되고 있는 엑슨과 소하이오의 수익상황은 <表-61>과 같다.

1983년에는 炭價의 상승과 합리화에 의해 이익은 약간 증가하기는 했지만, 이익수준은 여전히 낮다. 예를 들면, 엑슨의 경우 1983년에 2,000萬쇼트 이상의 생산에 대해 이익은 3,700달러에 지나지 않았다.

소하이오 이외의 나머지 3社에서는 석탄, 비철금속,

<表-60> 美國 主要石油會社の 化學부문 매출액·이익(1983年)

(單位: 100萬\$)

	엑슨	모빌	텍사코	소칼	걸프	아모코	소하이오	아르크	유니온
賣出額	6,392	2,424	1,410	1,059	1,748	2,894	566	2,550	1,133
利益	270	8	(23)	(12)	(76)	113	(3)	64	74

註: 걸프, 아르크, 소하이오는 營業利益, 기타는 純利益.

<資料> 各社 Annual Report 및 同 Supplement.

〈表-61〉 美國 主要石油會社의 석탄생산(판매량) 및 이익

	1979	1980	1981	1982	1983
엑슨 생산(100萬 쇼트 t)	8.6	11.4	14.4	19.7	20.5
利益(純利益, 100萬 \$)	(13)	4	13	23	37
소하이오 販賣(100萬 쇼트 t)	10.1	11.1	9.5	10.9	10.7
利益(營業利益, 100萬 \$)	4	9	(8)	(1)	21
아르코 販賣(100萬 쇼트 t)	6.2	11.4	15.8	19.2	18.8
걸프 생산(100萬 쇼트 t)	10.0	9.7	11.8	14.1	12.4
아모코 생산(100萬 쇼트 t)	-	0.9	3.6	8.9	8.4

〈資料〉 各社 Annual Report 및 同 Supplement.

우라늄 등의 이익이 합산되고 있으므로 석탄의 수익상황은 확실하지 않지만 대체로 비슷한 상황이라고 보여진다. 더우기 생산능력의 대폭적인 잉여가 급후에도 계속될 것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커다란 개선의 전망은 없다.

(4) 非鐵金屬部門

수요저하와 市況악화에 의해 최대의 타격을 입은 것은 銅, 알루미늄 등 非鐵金屬部門에 진출한 회사다. 소하이오는 1981년에 최대의 銅生産회사인 케네코트를 17.7억달러에 매수하였지만, 초년도부터 적자가 계속되어 1983년에는 그것이 2.4억달러(영업단계)로 확대되었다. 아르코는 1977년에 6.8억달러를 투자해 역시 大 銅·알루미늄회사인 아나콘다를 매수하였지만, 1981년부터의 市況악화에 따라 심한 타격을 받고 있다. 1982년에는 同部門(석탄, 우라늄 포함)의 적자가 최대인 약 4.5억달러(영업단계)에 달하였다. 지금까지 일

부 광업소를 폐쇄함으로써 합리화를 진행하고 있지만, 1984년에 이르러 마침내 다액의 賣却損을 낸 가운데 同部門의 주요부분을 아르크안·알루미늄社 등에 매각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아모코도 1979년에 銅, 鉛, 亞鉛의 大會社 키프로스·마이닝社를 4.6억달러에 취득했지만, 同部門도 역시 적자로 생각된다.

9社中 이 부문에 크게 진출한 것은 이상 3社이지만 타사는 그 정도 진출하지 않은 것이 행운이었다고 생각하고 있다.

(5) 其他部門

오일·셀, 타르·샌드, 석탄액화·가스化 등 합성연료부문에 회사에 따라서는 다액의 투자를 하고 있지만, 말할 필요도 없이 현재 업적에는 전혀 기여치 못하고 있다.

其他에너지로서는 우라늄部門이 있지만 역시 공급과잉과 市況악화에 따라 적자 회사가 많다. 소하이오가 1981년에 同부문을 폐쇄함에 뒤이어서 엑슨도 대폭축소의 방침을 발표하고 있다.

특이한 경우로는 엑슨의 電機部門을 들 수 있다. 이것은 획기적 省에너지모터를 개발했다고 하는 리칼이언스電機社를 1979년에 12억달러에 매수하였던 것이다. 그후 신기술의 응용이 어렵다고 판명된 데다가 주된 수요업체인 금속, 광산 등의 부진에 따라 同社는 부득이하게 적자를 내고 있다(1983년에는 14억달러의 매상에 대해 5,800만달러의 적자). 또한 엑슨의 와이드·프로세서 등 사무기를 포함한 「其他部門」도 1978~1981년의 4년간은 적자였다.

모빌의 小賣, 카다로그販賣部門의 몽고메리·워드社도 3년간(1980~82년)의 큰 적자 後, 간신히 흑자로 막 바뀐 참이다(1983년에는 66억달러의 매상에 대해 4,000만달러의 이익). 더우기 同社의 板紙·콘테이너部門도 업적에 기여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同 18억달러의 매상에 대해 100만달러의 이익). \*

# 나라위해 바친 희생

## 한مام으로 보답하자